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개성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개성성과 남대문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과 300여점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지난 9월 15일 평양민속공

개성성의 역사적 및 문화사적지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의 민족유산들 가운데는 오랜 역사유적인 개성성이 있다.

개성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로서 왕건이 918년에 고려국가를 세우고 자연지리적조건이 유리한 개성에 수도를 정한 때로부터 근 500년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방비하기 위해 건설된 개성성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개성성이 자리잡기 이전인 694년에 이미 개성에는 송악성이 있

에 있는 조선민속박물관에서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의 공동명의로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의 막이 올랐다.

제1차 공동조사가 개성성의 전구간에 대한 료해와 보존상태의 확인을 위주로 하였다면 2012년 6월초부터 시작된 제2차 공동조사는 개성성의 일부 제한된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와 현지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두번째로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외성 서벽과 발어참성 동벽 두 구간을 서로 비교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일가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외성 서쪽면이 인공적인 성벽들의 연장선이라면 발어참성 동쪽은 성벽과 천연바위들과 교차 또는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외성 서쪽성벽들은 그 연장선에 있어서 비교적 끈끈이 없이 잘 남아있는 반면에 발어참성 동쪽성벽들은 거의나 무너져 성벽의 일단이나 기초돌들만 남아있다. 두 구간의 성돌들의 모양과 축조양상도 서로 완전히 다른 점

있고 896년에는 돌레의 길이가 8.2km에 달하는 발어참성을 쌓았다. 그후 개성이 고려의 도읍지로 되면서 이미 있던 발어참성에 기초하여 화성과 궁성, 외성과 내성을 더 쌓았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개성성은 화성과 궁성, 내성과 외성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은 2011년 9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성성에 대한 제1차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 개성성의 전반적인 형태와 위치를 보다 정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은 1898년에 설립되었다. 세계각지의 고고조사발굴연구와 이 부분의 전문가양성사업을 하고있다.

이 연구원이 19세기말부터 해외에서 진행해오고있는 고고발굴사업은 해당 나라 벗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

들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오 늘도 이어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 사이의 협조는 2005년에 처음으로 파

개성성의 역사적 및 문화사적지위

을 보이고있는데 이것은 험한 산세와 지형의 제약을 많이 받은 결과이다.

2013년 9월 25일부터 시작된 제3차 공동조사는 개성성 외성의 남서쪽부분의 토성구간과 금요문터부근으로부터 북소문사이의 돌성벽구간을 기본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과정에 개성성 외성 남서쪽부분 토성벽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확히 확인할수 있었으며 외성 북쪽벽의 돌성벽과 치를 비롯한 성곽시설물들의 축조형식과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수 있게 되었다.

모두 3차례에 걸치는 개성성의 여러 성문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훌륭한것으로 알려져있다.

남대문은 현재 개성시 북안동의 중심네거리에 자리잡고있다. 남대문은 홍예문형식의 축대우에 합각식 단층문루로 구성되어있는데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있다.

현재 문루에는 그 무게가 14t이나 되는 연복사종이 걸려있다. 이 종은 고려시기인 1346년에 주조되어 남대문남쪽의 연복사라는 절에 있었던것인데 1563년 조선봉건왕조시기 이 절이 불에 탄 다음 여기로 옮겨오게 되었다. 종에는 고려말 이름난 학자 리곡이 쓴 명문이 새겨져있다. 20세기초까지만 하여도 개성남대문의 문루결에는 이 종을 달았던 종각이 있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도시건설계획》이라는 구실밑에 남대문을 파괴하려다가 개성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게 되자 남대문열의 종각과 돌성벽을 끝내 헐어버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불타버렸던 남대문문루는 1955년에 원상대로 복구되었다.

남대문의 두공은 포식두공으로서 짧은 소혀형체공에 청자를 맞추어 안팎 3도로 짜출했는데 안쪽으로 장어를 겹으로 놓고 그가운데에 화반을 끼우는 방법으로 특색있게 하였다. 날아갈듯이 가볍게 처든 지붕의 추녀는 굳건히 서있는 몸체에 어울리게 경쾌한 모습으로 형상하고 추녀마루에는 여러가지 잡상들이 있다. 원래 남대문문루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개성의 명필 한호(호는 석봉)가 쓴 현판이 있었는데 전쟁시기 남대문문루와 함께 불타버렸다.

개성남대문은 고려시기의 우수한 건축수법과 기교를

다시 알려진 남대문의 높이

보여주는 건물유적으로서 우리 나라 옛 건축유산들중의 하나이다.

3차례에 걸치는 개성성의 남대문발굴과정에 축대의 하부구조와 높이, 축대의 남쪽부분을 옮겨쌓았는데 고고학적자료들, 고려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층관계, 도시시설들의 변화과정과 시설물들을 새롭게 해명하였으며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특히 남대문의 축대가 현재 도로면일으 3단 물려있고 그 밑에 한단의 기반돌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여 보여주는것으로서 무지개문(홍예문)벽을 따라 큰돌들로 경계를 이루고 그 안쪽에 보다 작은 돌들로 옷면을 맞추어 현재 3.25m인 남대문의 원래 높이는 5m인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동조사발굴전시회장에는 남대문발굴홍영면도와 함께 시기별 문화층구분과 남대문의 정면도와 측면도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층은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땅속에 묻

조선의 훌륭한 전통을 좋아한다

된것은 쉽지 않은 기회라고 본다.

기자: 어떻게 되어 개성성에 대한 조사발굴을 하게 되 었는가?

엘리자베트 사비날: 나는 조선력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다. 언제인가 세나라시기의 무덤을 비롯한 유적들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조선의 역사를 연구해보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되었다.

본사기자

해를 가질수 있었으며 그 변천관계와 시설물들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근대시기 문화층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단들과 폐인 자리들은 도로건설과정에 쓰여있던 것으로 보고있다.

공동조사과정에 새로 발굴된 기와들에 새겨진 물결무늬, 연꽃무늬, 봉무늬 등은 고려시기에 많이 리용된 대표적인 장식무늬들이다.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도자기생산기술의 일단을 엿볼수 있는 갖가지 문양의 자기류들과 남대문 북쪽구간에서 발굴된 돌등으로 추정되는 돌구조물과 성돌에 새겨진 금석문의 탁본도 전시되어있다.

참으로 조선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되고있는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건축유산의 하나인 개성성과 남대문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리해를 가질수 있게 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프랑스정부,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두 나라사이의 리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원사이의 협조관계를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사화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2)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셋째형님! 옛날에 이르기를 입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소이다. 우리가 한국은 못말랑정 역적들과 한동아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자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거니 셋째형님은 어찌하여 순결한 아버님의 뜻을 받들려 하지 않아 아버님의 뜻을 받들것소이다.》

이 자리에서 둘째아들 홍부는 《아버님,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리성계가 왕위를 찬탈하는것은 시간문제인것 같소이다. 저도 불사이군으로 고려의 신하로 죽을말정 역적의 편으로 가지 않겠소이다.》라고 말하고 다섯째아들인 효명은 《저도 고려의 충신가문의 후손답게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강이만은 끝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

향을 표시하지 않았다. (홍강은 조선봉건왕조가 서자조정의 벼슬을 하면서 호의호식하였다.)

양호당은 다음날 입금이 자기에게 수여한 여러장의 관리임명장을 들고 왕궁에 들어가 입성에게 바치고 눈물을 흘리며 입금을 하직하였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 바람으로 왕궁에 들어갈 때 입었던 조복을 벗어서 뒤뜰에서 손수 불태워버리면서 또 눈물을 지었다.

한편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와 높은 관직에 오른 정도전 등은 리성계에게 사해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가

리성계와 조준, 정도전 등은 서로 사해하고 위로하면서 손들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었다. 리성계는 위로연이 세 왕조를 산생시킨것을 회합으로 되었다. 조준이 먼저 입

을 열었다.

《시중대감님, 우리의 거사를 빨리 단행해야 할것 같소이다. 또 어떤 놈들이 입금을 꾀어 우리에게 선손을 쓸수 있지 않소이까!》

이 말에 정도전이 동의를 표시하며 말했다.

《肅宗이다. 그전 리자검란때 입금이 자기 외조부이며 장인인 리자검의 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바로 리자검의 총부장군인 탁준정을 꾀어서 리자검을 치지 않았소이까. 입금을 허수아비로 생각지 마시고 빨리 거사하는것이 상책일것 같소이다.》

이 말을 들은 리성계는 눈을 꼭 감고 머리를 꺼떡거리었다.

이날 급급히 모의한것은 입금이 그 누구와도 접촉 못하게 연금상태에 두는것이며 이들과 동시에 고려왕족들도 그 누구와도 연계를 못가지게 경

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정몽주 측근 재상들을 빨리 제거하며 중간에서 동요하는자들은 구슬리기도 하고 위협도 해서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것이였다. 이때 조준이가 양호당도 없애버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성계가 반대하였

그래서 매일과 같이 의금부 호두각에서는 고려 충신들을 잡아다 심문, 고문, 처형하였다. 특히 고려 왕족제일의 왕씨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더욱 심했다. 누가 어떤 왕족을 끼고 고려국을 재생하려고 시도할가봐 그 사소한 이유로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다. 왕씨가문에 대하여



얼마나 탄압이 심하였으면 그들이 왕가라는 성까지 같고 숨어 살았겠는가. 개경장안의 골목마다에 의

복마전을 린상시켰다.

이통에 양호당의 만머느리 변씨의 아버지와 만오빠도 정몽주의 일파로 탄압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친정아버지와 만오빠의 비보를 들은 변씨부인은 통곡을 하다가 하늘을 우러르며 《이 역적놈아, 네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것이다.》라고 웨치고는 기절까지 하였다.

1393년 3월 보름날이다. 이날이 양호당의 회갑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환갑상을 차려드리고 환갑연을 크게 베풀어 늘 울적하게 지내시는 아버지에게 이날 하루라도 기쁨을 드리자고 그 준비를 서둘렀다. 이것을 눈치챈 양호당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말하였다.

《보아하니 너희들이 내 환갑을 차리자고 서두르는것 같은데 싹 걸어치워라. 나라가 망하고은 장안이 초상난 집처럼 곡성이 높음에 무슨놈의 환갑이냐? 환갑이고 뭐고 부산을 피우지 말아라.》

아들들은 난처했다. 만아를 홍수가 생각다 못해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

《아버님, 아버님 한생에 한번밖에 없는 환갑인데 어찌 섭섭하게 그냥 지나칠수 있겠소이까. 간소하게나마 환갑상을 차리도록 허락해주시요.》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앞에서 애원하듯 허락해달라고 졸랐다. 아들들이 간곡히 사정하자 양호당은 《그러면 내친지 몇사람과 점심이나 같이 하도록 해라.》라고 하였다.

이날 제일먼저 찾온 사람은 전에 호부전서를 지낸 변숙이였다. 변숙이로 말하면 양호당의 제자였으며 또 양호당의 만머느리의 오빠되는 사람이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스승을 찾았다. 양호당은 변숙이를 보자 매우 반기며 《오, 우리 사돈이 오시는구려. 이제 얼마만 이요.》 하면서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선생님, 세월이 하도 어수선하니 자주 찾아뵙지 못했소이다. 그간 기체만강하시고 가내도 다 무고하옵니까?》

《사돈의 녀려덕분에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무고하오. 어서 들어오오.》